

# 19세기 후반 이후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에 관한 맥락적 연구

최 경 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의상학과 강사

## A Contextual Study of the Pluralization of Sexuality Represented in Mainstream Fashion and Anti-Fashion Since the Late 19<sup>th</sup> Century

Kyung-Hee Choi

Lecturer, Dept. of Apparel & Textile Design, Konkuk University

(2007. 4. 20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sexuality represented in fashion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in a contextual view, on the basis of Foucauldian idea of post-structural sexuality. As for research methodology, literary research was undertaken from the conception of sexuality to a historical review of the culture and dress. Foucault maintains the view of plural sexuality, which floats by power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and oppositional discourses 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In contextual approach sexual ideology codified in fashion since the latter 19C shows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traditional sexual ideology in the latter 19C is a capitalist value, which gives a priority to bourgeois man's profits, and the Victorian discourses of sexuality constructs the dichotomized fashion of the period. Next, the former half of the 20<sup>th</sup> C is regarded as the period of conformity rather than opposition with various alternatives appropriated to the mainstream, so the traditional sexual ideology in fashion of this period is still preserved. Finally, in post-capitalism period of the latter 20C a variety of anti-fashion visualized plural sexuality from the enormous oppositional discourses. Although it doesn't all mean deconstruction of sexuality in fashion by the anti-fashion re-appropriated without oppositional meanings, pluralization of sexuality implies dynamics of sexual discourses in the next historical period. As a result, fashion since the latter 19C has been changed as a means for expressing age and sexual desire out of gender and class. And mainstream fashion in even postmodern period keeps the modern value on the center of the hegemonic heterosexual masculinity though the increase of Androgynous Femininity in women's fashion may connote the meaning of femininity. The plural sexuality represented in fashion has a contextual flexibility, thus sexuality floats with a specific socio-cultural context and fashion represents a masquerade as an identity vehicle.

Key words: context(맥락), sexuality(성), pluralization(다원화), mainstream fashion(주류패션), anti-fashion(반패션)

## I. 서론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의 성의 억압에 관한 사고는 20세기로 가면서 성의 해방으로 전환하였고,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함께 성은 갈수록 다원화·파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으로, 성은 특수한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성 담론을 통해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성은 어떠한 본질적인 구조를 갖기 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 개인의 정체성은 그 사회에서 위치 지어지는 다양한 담론 속에서 구축된다. Foucault<sup>1)</sup>에 따르면, 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므로 선천적이거나 자연적인 특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권력과 지식 체계의 산물이다. 끊임없는 구조적 과정으로서의 패션은 특수한 맥락에 따라 구조화된 성을 형상화하는 효과적인 기호매개체로, 특수한 역사적 시기의 담론을 재현하는 물질대상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성 표현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와 관련한 맥락적 차원의 연구와 함께,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권력관계가 패션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중반 패션에 성차가 나타난 이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주류패션과 반패션을 통한 패션의 형식적 변화는 각 시기별 성 이데올로기와 접합한다. 본 연구는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을 토대로, 패션에 표현된 성이 19세기 중반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분법적 개념화를 이루었고, 이후 20세기 전 후반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의 다원화로 이행하였는지를 맥락적 고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패션에 표현된 성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등장한 주류패션과 반패션을 통해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성 이데올로기를 유추하고, 특정한 성을 표상하는 패션 이미지의 형식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 중, 특

히 역사적 연구에 주안점을 둔다. 먼저 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서 성의 개념을 주로 Foucault의 사고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Foucault의 시각에서 성, 몸, 패션의 관계를 통해 패션에 표현된 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19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성의 이분법적 개념화와 20세기 전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을 맥락적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이로부터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20세기 후반의 각 시기별 맥락에 따른 주류패션과 반패션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통해 지배적 성, 저항적 성, 그리고 대안적 성의 재편양상을 유추하고자 하며,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뿐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의 차원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로, 여기에서 19세기 후반은 패션에서 이분법적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고, 20세기 전 후반의 기점은 반문화가 급격하게 가시화된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 과정을 맥락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 유형들 간의 관계의 차원에서 패션으로 코드화된 성 이데올로기를 유추하고, 동일한 성의 패션이 미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적 연구는 19세기 후반의 패션을 ‘억압적 성’, 20세기의 패션을 ‘해방적 성’,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의 패션을 ‘해체적 성’으로 규정하는 단순화 된 사고를 재고하려는 시도이다.

## II.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일반적으로 성의 개념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구분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에 근간한 것으로, Foucault를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은 몸과 패션에 표현된 성을 다원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 1. 성의 개념

성과 관련한 개념에는 성차(sex), 성별(gender) 그리고 성(sexuality)이 있다.<sup>2)</sup> Oakley<sup>3)</sup>에 따르면, '성차(sex)'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즉 성기에 있어서의 가시적인 차이이며 생식의 기능과 관련된 차이를 언급하는 반면, '성별(gender)'은 문화의 문제로 이는 '남성적인' 그리고 '여성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구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분은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성 개념에 근간한 것으로,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이라 간주함으로써 성차와 성별의 관계의 자의성을 주장한다.<sup>4)</sup> 따라서 주로 성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불평등한 성별 관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코드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각각 문화/자연, 정신/몸, 행동하기/존재하기, 모험/사랑, 관음적 응시자/물신적 욕망의 대상, 성취와 전문성/몸과 패션, 공적 영역/사적 영역, 적대적 권력/패락적 권력 등의 인위적 대비로 다양한 문화적 매커니즘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몸과 패션과 관련하여서는 19세기 이후 남성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체적 효용성과 엄격한 외모로 제한된 반면, 여성성은 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로 이분화 되는데, 이는 결국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이라는 권력관계로 합법화 된다.

그러나 성에 대한 구조주의적 시각은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하다는 논의에 비판을 가할 수는 있으나, 여성 혹은 남성들 개개인의 다양한 차이뿐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개별 정체성을 간과한다. 따라서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난 사회 내 다양한 유형의 성 정체성들 사이에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Foucault의 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사고는 다원적 성에 관한 유용한 관점을 보유한다.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의 성 개념은 생물학적 성차

나 사회적 성별을 포함한 '성적인 것의 전체'로 성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성차가 성별 외에도 섹슈얼리티와 불가피하게 융합되어 있는 방식에서 알 수 있는데, Butler<sup>5)</sup>는 성차와 성별에 관한 우리의 사고가 일반적으로 이성애를 언급하기 위해 적용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식적 이해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성은 성차, 성별, 그리고 욕망의 통일체로, '강제적 이성애'에서 욕망과 성별은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성별체계는 자연화 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시작은 Foucault의 <성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é)>에 연원하는데, 그에 따르면 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는 가변적인 주제이다. Foucault는 소위 '담론(discourse)'이라는 것을 통한 지식의 생산을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담론이란 '특정 순간, 특정 주제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언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일련의 진술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Foucault에게 성은 하나의 자연적 본질이나 억압이 아니라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지식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Foucault는 성에 대해 비판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원적 성 유형들 간의 형태를 포착해서 지배와 복종의 재편양상을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은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특정한 형식으로 형성되고 규정되는 성의 무한한 유연성을 주장한다. 여기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Foucault가 '규율 담론'이라 언급한 권력의 테크닉의 보급이며, 이러한 규범은 동시에 새로운 저항의 영역, 즉 역의 담론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몸과 패션은 새로운 하위문화적 주체의 출현에 따른 반패션이라는 또 다른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미창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작용의 영역은 저항적인 성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므로 우리는 저항의 장소로서 남성과 이성애와 대립하는 여성이나 동성애뿐 아니라, 후기구조주의의 다원적 시각에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패션에 표현된 성

성은 성적 몸에 근간하며 복식은 몸을 장식하고 거기에 성을 부여한다. Foucault 는 성과 몸이 권력을 매개로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방하는 권력관계의 장이며 표현으로, 자연의 범주가 아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Foucault의 몸은 저항의 가능성을 담지하는 성, 즉 억압이 아닌 생산적이며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담론의 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Foucault에게 몸은 규율권력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유순한 몸'이며, 담론은 몸의 미시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내면화된 기준을 따라 자기를 관리하는 쾌락과 욕망의 만족, 즐거움의 추구로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주입된다.

이러한 Foucault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주체가 성을 표현하기 위한 실천으로 패션을 이용하는 전략과도 관련된다. 사실상 Foucault는 패션 혹은 복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몸담론을 권력/지식에 관한 사고를 위한 주요한 물리적 실체로 파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 담론은 현존하는 성 정체성을 구축하는 재생산이자 혁명적 관행으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들이 협상되는 하나의 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은 특정 역사적 시기에 패션이 성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혼란시키는 방식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간의 권력관계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19세기 후반 이후 시기별 맥락에 따라 사회 내 주류세력을 형성하는 헤게모니적 성을 '지배적 성'으로, 이에 대립하는 하위문화 세력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성을 '저항적 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패션실천을 각각 주류패션과 반패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저항적 성의 반패션이 주류패션과의 절충을 통해 지배문화로 재전유된 경우를 '대안적 성'이라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20세기로 갈수록 보다 다원화된

성 정체성 구조 속에서 19세기에 개념화된 지배적 성을 '전통적 성'이라 명명함으로써 이전의 반패션이 주류패션화 되어 새로운 성이 지배적 성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성의 개념, 그리고 패션에 표현된 성은 진정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범주들을 차용한 것이며, 특별한 속성, 능력, 성향, 그리고 주어진 역사적 순간의 행위 형태에 부가된 문화적 의미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Foucault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서로 다른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하는 권력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성의 지배와 저항적 형식들, 그리고 이것이 몸과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은 보다 다차원적인 관계와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Ⅲ.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맥락적 고찰

본 장에서는 Foucault의 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19세기 중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분법적 개념화를 이루었고 이후 20세기 전 후반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의 다원화로 이행하였는지를 역사적 맥락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20세기 후반의 각 시기별 맥락에 따른 주류패션과 반패션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통해 지배적 성, 저항적 성, 그리고 대안적 성의 재편양상을 유추하고자 한다.

### 1. 19세기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모더니티는 산업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내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 산업혁명은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사회 권력을 쥐게 된 부르주아 계급을 탄생시키는데, 이들의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는 자본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성 역할의 분화와 성의 개념을

정착시킨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남성에게 이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에서 유용성에 토대를 둔 보편적 인간상을 부여한 반면, 여성에게는 이와는 상반된 성적 충성과 모성이 요구되는 사적 영역에서 섹슈얼리티와 장식성을 부여함으로써 공사 영역의 분리와 성적 대비를 극대화 시키며, 이로부터 가부장제를 토대로 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sup>7)</sup> 한편, 19세기 후반 라파엘로 전파의 영향을 받은 유티주의 운동과 복식개혁운동 그리고 모더니티와 함께 나타난 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개인주의, 페락주의적 경향, 페미니즘 운동 등은 19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저항적 성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류패션과 반패션을 통해 가시화된다.

첫째, 19세기 후반의 주류패션은 이분법적인 성별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전범으로서의 부르주아 남성의 사회적 정당성과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옹호를 통해 사회 내에 하나의 지배적 성을 구축한다. 19세기 중반 시민계급 남성패션은 공적 영역에서 엄격하고 검소하며 유용성만을 가시화한 테일러드 수트 를 기본으로, 현대적 형식의 모던클래식 룩(Modern-classic look) <그림 1>을 통해 남성의 힘과 강건함, 활동성과 독립성, 이성과 합리성, 진지함과 성실성을 코드화하였다. Flügel<sup>8)</sup>이 '남성의 대 포기'로 언급한 이러한 패션현상은 감성적이고 여성적이라 여겨진 패션과 대비된 이성적이고 남성적인 정치 영역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귀족계급 남성과 중산층 남성의 정치적 권력을 향한 하나의 투쟁을 함축한다. 이처럼 수수한 남성패션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여성패션은 코르셋과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의 극도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맨틱 룩(Romantic look) <그림 2>으로, 이는 부르주아 남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으며, 신체적 억압과 부동성을 통해 사적 영역에 머문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드러내었고, 화려한 장식과 성적 암시를 통해 관능성과 동시에 육체적 재생산 능력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단순하고 고전적인 남성수트 스타일은 계급적 차원에서 귀족, 그리고 성적 차원에서 여성과 동성애자와의 차별화

를 통해, 강하고 자율적이며 지배하는 남성성을 형성했던 반면, 여성패션은 종속성, 관능성, 모성성과 결합되어 지배하는 남성 주체의 수동적 대상으로서 정숙한 숙녀의 태도를 드러낸다.

둘째,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세력들은 반패션을 통해 새로운 성 정체성을 실천하지만, 이는 다시 부르주아 남성 지배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배담론으로 전유됨으로써 사회주변부를 형성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유티주의 운동과 복식개혁운동과 함께 나타난 저항적 반패션은 여성의 경우 미적 복식의 신고전주의적 스타일과 이성주의 복식의 남성복 스타일에서, 그리고 남성의 경우 댄디 룩(Dandy look)과 로맨틱 보헤미안 룩(Romantic bohemian look)의 패션형식으로 나타난다. 미적 복식 <그림 3>은 그리스 식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몽환적인 관능성과 개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율적이고 해방적인 여성성을 보이며, 이성주의 복식운동 <그림 4>에 나타난 패션의 거부와 성 차가 약화된 자연스러운 의복의 추구는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여성성과 함께, 남성과 동등해지려는 독립적인 여성성을 암시한다. 그리고 댄디 룩 <그림 5>은 당시 남성 주류패션에 반하여 취향과 태도에 있어서 배타적, 과시적, 자아도취적인 새로운 남성성을 부여하며, 로맨틱 보헤미안 룩의 에로틱한 함축과 장식성은 당시의 여성성에 대한 관념과 부합되면서 저항적 남성성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패션은 한편으로는 동성애 등 성적 부적절성을 나타내는 코드로 인식되어 지배집단에 의해 비판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적복식에 내재된 여성의 성적 대상화나 여성의 남성복식의 차용을 통해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등의 내부적 모순들로 인해 지배적 성 이데올로기로 재전유되기도 하는 등의 한계를 보인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부르주아 남성 지배세력은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여성을 화려한 장식으로 대상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 강화를 위해 이성을 정상화시키는 성 담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이에 반하는 저항적 성을 주변적이며 위협한 성적 욕망으로 구성하기에 이른다.



<그림 1> 19세기 중반 남성복식



<그림 2> 크리스탈린 스타일



<그림 3> 미적 복식



<그림 4> 이성주의 복식



<그림 5> 맨디 룩

셋째, 여성패션에서는 반패선의 주류화를 통해 대안적 성이 등장하였으나, 남성의 반패선은 성도착이나 동성애적 혐의와 같은 저항적 남성성에 대한 강한 사회적 비판의 형성과 함께 주류패션으로의 확산이 차단된다. 이를 19세기 후반의 사회구조에 나타난 외모의 사회화 매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여성스런 복식을 입는 행위 그 자체는 여성과 같은 종속적 위치와 결합하였으며, 맨디와 보헤미안과 같은 유사 복장도착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질서의 암묵적 통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점에서 남성의 반패선에 나타난 여성적 장식은 19세기 후반의 성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보다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19세기 후반에 여성패션에 나타난 가르손느(Garçonne) 스타일은 남성 복식에서 몇몇 품목들을 가져와 여성 복식의 전체적인 효과를 미묘하게 변화시켰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서 중류층 취업 여성들의 스타일을 통한 정체성 협상의 한 예로 다음 시기의 새로운 대안적 여성성의 전조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 이데올로기는 뚜렷한 성의 이분화를 통해 패션과 섹슈얼리티와 결합한 여성과 여성화 된 남성에 대한 배제와 함께 전범으로서의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시킨다. 이처럼 성에 대한 19세기 후반의 담론은 개인과 가정에 힘을 행사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생산해냈으며, 당시의 패션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이라는 권력관계의 정당성을 가시화하면서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담론화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반패선으로 야기된 저항적 성은 이후 20세기로 나아가면서 보다 다원적 성 정체성이 등장하는 배경을 제시한다. 19세기 후반의 주류패션과 반패선에 표현된 성의 양상은 <그림 15>와 같다.

## 2. 20세기 전반의 주류패션과 반패선에 표현된 성

20세기 전반부는 모더니티와 두 차례의 세계전쟁, 여성참정권 획득, 파시즘, 대공황,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성복 대량생산 시스템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양차 대전은 빅토리아 시대의 부르주아적 윤리의식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어 이 시기의 성 담론의 형성에 주요 전환점이 된다. 한편으로 전쟁은 남녀 성 역할의 재편과 더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페락주의적 사고와 성적 방종을 야기시켰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여성해방운동을 촉진시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쟁은 이전부터 존재해 온 남성성의 위기에 관한 담론을 일소하였고, 전후 남성의 권력 약화에 대한 방어기제로 성 의학을 동원해 성적 공포감 조성과 함께 이성애를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자 재등장한 보수주의적 경향과 대공황과 같은 커다란 경제적 사건은 20세기 전반부를 전반적으로 저항보다는 순응의 시대



<그림 6> 뽀아레 룩



<그림 7> 플래퍼 룩



<그림 8> 뉴 룩



<그림 9> 유틸리티 룩



<그림 10> 20세기 전반의 남성 슈트

로 구성한다. 정부는 다양한 청소년 훈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수주의적 가치와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담론화를 도모한다. 또한, 전후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인한 패션의 변화는 전통적 성과 새로운 성 간의 모순을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패션을 소수의 전유물에서 대중을 위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이로부터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며, 20세기 전반부의 주류패션과 반패션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20세기 전반에는 모더니티의 사고와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단순하고 기능적인 비공식화된 패션 형식들을 주류패션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다양한 대안적 성들의 출현을 가져온다. 즉, 여성패션에서 1910년대의 뽀아레 룩(Poiret look), 1920년대의 플래퍼 룩(Flapper look), 양차 대전시의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등은 성적 쾌락을 즐기는 독립적인 여성 주체의 탄생을 암시하였고, 여성패션에 비해 늦지만 남성슈트에 미세한 관능적 암시가 나타났고 전후 클래식캐주얼의 형식으로 남성패션에도 비공식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주류패션으로 나타난 대안적 성들은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전유 됨으로써 구조적 한계를 보이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대안적 여성성을 암시하는 주류패션화 된 새로운 패션 이미지들은 젊고 해방적

이며 독립적인 새로운 여성성을 갈구하나, 여전히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구속을 받고 있는 모순적인 여성들의 요구와 담론을 반영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윤리의 붕괴를 우려하는 도덕주의자나 정부 당국에 의해 조장된 성적 공포심으로 역습을 당하기도 하였다. 뽀아레 룩 <그림 6>은 길고 날씬한 단순한 형태로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모더니티와 여성해방에 관여하지만, 이는 다시 길고 일직선 라인의 코르셋을 재고안 하였을 뿐 아니라 좁은 폭의 스커트로 여성의 다리를 속박하였고, 뽀아레 룩에 나타난 동방 취향은 식민화 된 여성의 몸을 암시했으며, 여전히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묘사함으로써 여성해방과의 시기적 역설을 보인다.<sup>9)</sup> 또한 플래퍼 룩 <그림 7>은 비종속적, 반모성적, 양성적인 특성을 지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성을 부각시키지만, 직선적이고 날씬한 튜블러 형식은 역시 곡선적인 코르셋 대신에 긴 원통형의 고무 코르셋으로 또 다른 신체 억압적 도구를 생산해냈고, 장식적인 소재에 깊게 파인 목선과 다리의 노출은 여전히 관능적 암시를 드러낸다. 또한 사회적으로 전후의 독신 여성이나 관능적 함축을 보이는 패션 스타일의 남성성에 대한 성적 공포심이 담론화되어, 대안적 성을 의미하는 양성적 패션스타일은 보수주의자들의 성적 경계를 위협하는 매개가 되었다. 즉, 이들은 때때로 동성애자, 창녀 혹은 성 도착자나 정신박약으

로 치부되기도 하였으며, 19세기의 도덕적 순결의 수사학은 사회 위생학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타자를 일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sup>10)</sup>

둘째, 전후에 나타난 보수주의적 가치는 20세기 전반의 여성주류패션에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된 전통적 초여성성을 재현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남성성의 위기는 남성패션에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수트를 확산시키는데, 이는 당시의 패션을 통해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회복하고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가시화하려는 실천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대공황과 실업, 파시즘의 대두는 쾌활한 진보주의를 보수적 가치들로 일소하였고, 정신분석학의 출현은 성에 대한 정상성의 논쟁을 야기시켰으며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지속된 냉전체제의 권위주의적 규율은 성별 분업과 이성애를 정상화시키면서 전체 문화담론은 여성에게 '여성적 신비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전통적 성을 여전히 지배적 성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여성패션은 20세기 초의 에드워드안 룩(Edwardian look) 이후, 1930년대의 롱 앤 슬림 룩(Long & slim look)으로 다시 여성의 곡선과 풍만함을 재현하였고, 헐리우드의 영향으로 글래머 여성성이 여성의 자유로운 성 관념을 표현하였지만 1950년대의 뉴 룩(New look) <그림 8>과 유틸리티 룩(Utility look) <그림 9><sup>11)</sup>은 관능적 대상이자 전통적 가정주부로서 전통적 여성성의 지속을 드러낸다. 한편, 이 시기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성 권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사회 내 담론은 양 차 대전을 계기로 남성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같은 전통적인 덕목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YMCA나 스카우트 등의 단체를 통해 청소년들을 훈육하였으며, 파시즘과 나치즘과 함께 나타난 우생학은 의무적 이성애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양차 대전은 군사적 남성성을 통해 전통적 남성성을 강화하는데, 영웅적, 전투적, 남성동맹적 이데올로기<sup>12)</sup>는 전시의 유니폼을 통해 재현된다. 또한 전후에 나타난 남성의 위기의식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감소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수트 <그림 10>를 지속시킴으로써 보수적 가치를 재확인하는데, 사실상 2차 대전 이후까지도 남성수트는 기능이나

디테일 혹은 착용방식 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함 없이, 일, 성공, 강함, 기업심과의 강한 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sup>13)</sup>

셋째, 20C 전반부에도 여성패션은 현저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성의 등장을 보였던 반면, 남성패션도 비록 새로운 대안적 성을 모색하나 대체로 전통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느린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20세기에든 여전히 남성의 권력을 고수하려는 경향과 남성을 패션의 경박함이나 섹슈얼리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지속을 코드화한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대안적 성의 출현은 주류패션에서 점차 나타나는 비공식화와 관능성의 암시 등을 통해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통적 성 자체 내의 재구조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20세기 전반의 패션은 19세기 말의 반패션을 다양한 대안적 성을 통해 주류패션으로 유인하고는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 시기의 주류패션은 모더니티를 향한 열망과 전쟁이라는 재구조화의 순간을 계기로 특히 여성성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대안적 성을 가시화하였으나, 50년대 말 반문화의 출현이 있기 전까지 전통적 성의 공고한 유지와 더불어 또 다시 전통적 성으로 전유되는 대안적 성과 저항적 성의 약세를 보여준다. 20세기 전반의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양상은 <그림 15>와 같다.

### 3. 20세기 후반의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

20세기 후반의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가 1960년대의 반문화의 출현과 성의 혁명이라면,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성의 해방에 대한 보수주의적 반동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급진화된 성에 대한 다원적 사고이다. 무엇보다 20세기 후반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소비의 논리가 노동이나 물질적 생산품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나 문화까지도 지배하는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한다. 이러한 맥락은 이 시기가 단순히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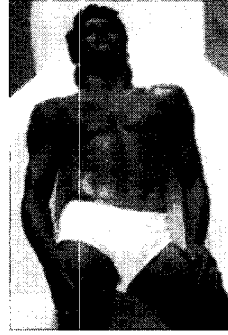




<그림 11> 미니 스커트



<그림 12> 파워 룩



<그림 13> 뉴 맨의 이미지



<그림 14> 펑크 여성

해방을 성취 했다가보다는, 이전보다 다양한 성격 각본들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기존의 구조와 충돌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 경계의 모호성과 함께 성이 세분화, 다원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20세기 후반의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사회 내 지배와 저항을 포함한 전체 담론 내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류패션과 반패션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재현된다.

첫째, 20세기 후반 하위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저항담론의 출현은 패션에서 과거에 중시되었던 계급과 성별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대신에 성적 쾌락과 젊음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주류패션에 보다 새롭고 다양한 성의 출현을 야기한다. 반문화와 여성해방운동은 여성패션에서 전통적 성 이외에도 1960,70년대 미니스커트로 대표되는 리틀 걸 룩(Little girl look), 유니섹스 룩(Unisex look), 바지착용의 대중화를 이끌어 성과 세대 간의 가치의 전복을 암시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는 1980년대 이후 파워드레싱(Power-dressing)으로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enous look),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 등을 통해 성별 외에도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암시하는 중성적 혹은 양성적 형식의 다양한 대안적 성의 출현을 가져온다. 2차 대전 이후 증가한 소비산업의 발달은 '싱글 걸(single girl)'이라는 1960년대의 반모성적인 새로운 문화적 이상을 구현한다. 미니 스커트 <그림 11>나 직선적 실루엣의 섹 드레스 등으로 재현된

젊고 성적으로 자유방임적인 미성숙한 소녀의 이미지는 자유롭고 해방된 여성성을 구현한다. 또한 이 시기 청소년은 기성문화에 대한 반발이나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양성(양성)이 유사한 유니섹스 룩을 채택하는데, 이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함축하는 진보적인 여성의 성 역할 변화를 암시한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1980년대의 파워드레싱과 '뉴 맨(New Man)'이라는 새로운 남성의 출현을 가져온다. 파워드레싱<그림 12>은 남성적 복식인 슈트와 여성적 장식(장식)을 결합시킨 제복의 형태로, 직장에서의 권력을 성취하기 위해 몸과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독립적 직장여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측면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섹슈얼리티의 표현방식에 변화를 가져와 남성패션에도 양성적 패션이나 완화된 하위문화 스타일이 주류패션으로 유포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 새로운 패션도상으로 출현한 뉴 맨<그림 13>은 과거 여성성과 결합된 관능적이고 자아도취적이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리더로 주류패션에서 하나의 양성적 남성성을 형성하며, 1990년대에는 젊음에 대한 가치를 표방한 소비문화의 주체로서 '뉴 래드(New Lad)'<sup>14)</sup>라는 새로운 청소년 주체가 탄생한다. 이처럼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롭고 다양한 패션 이미지들은 여성에게 젊음과 자율적, 주체적 사고, 남녀 평등과 사회참여를 향한 열망을, 그리고 남성에게는 힘과 권위라기보다는 젊음과 섹슈얼리티의 암시를 통한 정체성 표현을 코드화한다.

둘째, 반문화와 여성해방운동, 해체주의 등은 다

양한 하위문화 집단을 통한 저항적 성의 출현을 가져오는데, 이 시기의 펑크 룩(Punk look),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 복장도착(Transvestism) 등의 반패션은 주류패션과 지배적 성 개념의 변화를 조장하면서, 성별 경계의 해체와 다원적 성의 표현 양상을 제시한다. 해체주의는 성별 이분법의 와해를 넘어 성의 수행적 구조를 주장하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항적 하위문화 패션인 펑크 룩<그림 14>은 값싸고 야하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을 통해 지배문화의 질서에 저항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도덕적 담론이나 코드에 대한 스타일 상의 전면적 대립과 성적 일탈에 의해 새로운 성을 구성한다.<sup>15)</sup> 또한 하위문화 스타일을 통해 남성성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동성애 집단의 도전은 동성애와 복장도착을 암시하는 스타일의 도입을 통해 성별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유희를 보여준다. 이처럼 20세기 후반의 다양한 성의 출현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청소년, 여성, 동성애 집단 등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성별, 인종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억압 받아왔던 세력들의 정체성 표명과 새로운 권력을 향한 투쟁과 결합한다.

셋째, 성의 해방에 따른 자유화, 균질화, 다원화의 명제는 권력 관계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은폐하고 신비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패션에 표현된 대안적, 저항적 성은 의미의 변질을 통해 지배담론으로 전유됨으로써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지속에 기여하게 된다. 즉, 1960년대 미니스커트로 성의 해방을 상징하였던 싱글 걸은 현대여성에게 가해진 다이어트와 운동이라는 새로운 몸의 통치체계의 구축을 받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으로 소비사회 조작의 희생물이라는 모순을 지니며, 독립적 직장여성을 상징하였던 파워드레싱은 몸의 은폐를 통해 섹슈얼리티가 공적인 일에 방해가 된다는 지배 담론을 재공식화 함으로써 여성성을 섹슈얼리티와 동일시하던 기존의 구조를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16)</sup> 그리고 새로운 남성으로 등장한 뉴 맨의 출현은 매체 추동적 소비 논리의 조작을 통해 실제보다 과장된 대중매체의 산물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아울러, 페미니스트들의 남성복

식의 전유는 남성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역설을 초래했으며,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가시화했던 펑크패션이나 복장도착 등에 표현된 저항적 성은 생산자 기호가치를 통해 저항적 의미의 소실과 함께 주류패션으로 전유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발전의 시나리오는 다소 단선적인 것으로, 사회에는 여전히 성적 공포와 계급이나 인종적 갈등에서 나온 타자의 위험에 관한 전통적 담론이 지속하였음을 보여준다.

넷째, 20세기 후반에도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당시 보수주의자들의 도덕적 담론의 유포와 남성성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남성 주류패션은 이를 가시화한다. 20세기 후반의 성의 해방은 인구조절을 위한 국가나 박애주의적 조직의 잘 조율된 사회적 지배양식을 표현하였으며, 1960년대가 성의 해방의 신화를 받아들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성적 공포를 통해 보수주의적 교화로 이행하려는 성적 반동의 담론이 생산된다. 이 시기에도 전통적 성은 주류패션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는데, 여성패션의 경우 이전보다 단순성과 관능성을 가미하여 대안적 여성성과의 상호작용과 함께 변화한다. 즉, 1960년대에 자주 등장한 샤넬 수트의 단순하고 비공식화 된 룩이 새롭게 전통적 여성성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980년대의 여피(Yuppie) 스타일로 나타난 리치 룩(Rich look)은 부의 과시라는 차원에서 화려하고 관능적인 여성성의 전통적 형식을 유지한다. 그러나 남성패션의 경우, 여가복에서 나타난 비공식화나 관능적 경향과는 달리, 남성수트는 미세한 실루엣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단순하고 획일적인 유니폼 형식으로 전통적 남성성을 지속한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주류패션에서 남성의 경우보다 더 급진적 경향을 보이는 여성의 패션실천은 이 시기에도 잔존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성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여성성에서의 비공식화 경향이나 전통적 남성성에서의 관능성의 가미 등은 갈수록 다원화 되어가는 새로운 성의 출현에 의한 지배적 성의 개념과 주류패션의 변화를 가속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성은 특히 하위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부터 기존의 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다양한 새로운 주체들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적 혹은 저항적 성은 효과적으로 주류패션을 통해 전유되므로, 이 시기에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성의 해방을 성취했다는 단순화된 규정 보다는 과거에 비해 사회 내에 갈수록 다원적인 성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은 서서히 주류패션을 변화시켜 지배적 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하위문화적 주체들의 새로운 패션실천은 다음의 역사적 시기에서 지배적 헤게모니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의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양상은 <그림 15>와 같다.

#### IV. 19세기 후반 이후 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에 관한 종합적 논의

본 장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 후반을 거치면서 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 양상을 시기별 맥락에 따라 유동하는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역사적으로 패션에 등장한 성 유형들을 코드화 한 패션 이미지의 형식적 변화과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 다원적 성 개념을 토대로, 19세기 후반 이후 맥락에 따른 주류패션과 반패션을 통해 본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 모더니티의 시작,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 산업혁명으로 인한 성 역할의 분화 등의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주류패션은 수트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남성성을 구심점으로 이에 대립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여성패션을 형성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반패션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주로 계급과 섹슈얼리티라는 양 극단을 암시하는 남

성지배와 여성종속의 이분법적인 성을 코드화한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적 부르주아 남성의 권익을 우선시한 자본주의적 가치로, 19세기 후반의 패션 자체가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이었다기보다는 이 시기의 성에 대한 빅토리안 담론들의 무수한 확산과 강조가 이분법적 패션을 구성한다.

둘째, 20세기 전반에는 양 차 대전으로 인한 성 역할의 변화가 모더니티의 이상과 결합하여 이전의 반패션이 대안적 성을 통해 주류패션화 됨으로써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듯 하지만, 전후 대공황, 파시즘의 출현, 남성성의 위기 등과 함께 나타난 보수주의적 성 담론은 이 시기를 전반적으로 저항보다는 순응의 시대로 구성한다. 따라서 20세기의 패션이 성의 해방을 표현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사고로, 20세기 전반에도 패션에 표현된 성은 대안적 성의 지배담론으로의 지속적인 전유를 통해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여성패션에 비해 변화가 느린 남성패션을 통해 더욱 가시화된다.

셋째, 20세기 후반은 반문화와 제 2파 페미니즘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성 정치적 운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함께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통적 성 담론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저항의 경합으로 성의 다원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패션에 표현된 성은 주류패션의 반패션에 대한 전유나 남성패션보다 급진화 된 여성패션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에 성 차의 붕괴나 해체가 이루어졌다는 시각은 전체 패션경향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된 측면을 보인다. 그러나 반패션으로 나타난 새로운 저항적 성의 등장과 주류화된 대안적 성의 확산은 주류패션에 점차 젊음과 섹슈얼리티를 향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차후에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적 고찰을 통해 본 성 유형은 여성의 경우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으로,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으로 각각 5 가지로 유형화되며, 그 외에 20세기 후반에 새로 등장한 저항적 성으로 해체적 성이 나타난다.

## 2.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 유형의 역사적 변화추이

19세기 후반 이후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 유형은 동일한 성의 경우에도 다양한 패션의 형식적 변화를 보인다(그림 15). 이는 각 시기별 맥락에 따른 코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패션이미지의 변화는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접합한다.

19세기 후반 지배적 여성성이었던 전통적 여성성은 크리놀린이나 버슬 스타일이었던 것이 20세기 전반 에드워드안 룩, 롱 앤 슬림 룩, 뉴 룩, 유틸리티 룩 등으로 변화해 이전의 전통적 여성성에 비해 형식 면에서 기능화, 단순화된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로맨틱페미닌 룩, 모던클래식 룩(샤넬 룩), 리치 룩 등의 패션이미지가 이를 대체해, 20세기 전반 대안적 성을 재현했던 샤넬 룩을 전통적 여성성으로 편입시켰을 뿐 아니라, 과시적 사치성을 드러낸 리치 룩을 추가함으로써 기능성 외에도 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한편, 19세기 후반의 지배적 남성성은 테일러드 수트를 중심으로 한 모던클래식 룩으로, 20세기 전반에도 지속된 전통적 남성성의 유지와 함께 비록 전보다 편안함과 단순함을 추구한다 할 지라도, 커다란 변화 없이 유사한 형식을 유지한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전통적 남성성을 표현하는 패션이미지는 비공식성 뿐 아니라 미묘한 관능성을 암시하기도 해, 모던클래식 룩, 프레피 룩,<sup>17)</sup> 클래식 캐주얼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전통적 성은 20세기 후반에도 남녀 주류패션에서 여전히 계급과 섹슈얼리티의 표현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지배적 성을 형성하지만, 양 성 모두의 패션에서 점차 비공식화와 관능성을 지향하면서 성별차이는 완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글래머 여성성은 19세기 사회 주변부에 위치했던 매춘부들의 복식인 코르티잔(Courtesan) 복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20세기 전반 헐리우드 영화산업과

함께 대안적 여성성으로 편입된다. 글래머 여성성은 주로 전통적 여성성을 나타내는 패션 이미지와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19세기 후반에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에 화려한 장식과 신체노출을 강조한 형식은 20세기 전반부에 뉴 룩이나 스웨터 걸 룩 등을 통해 주류패션에 여성의 신체적 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여피즘으로 인한 과시적 사치풍조와 함께 리치 룩으로 전통적 여성성과 결합하며, 1990년대로 가면서 하위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글래머 룩(Glamour look)으로 발전한다. 이처럼 글래머 여성성과 전통적 여성성의 계류는 20세기 후반 여성성의 변화가 점차 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여성성의 극단을 글래머 여성성으로 둔다면 남성성의 극단인 마초적 남성성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시 까르마 놀과 판탈롱으로 구성된 유니폼에 나타난 군사적 남성성을 기점으로, 강한 육체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전통적 남성성과 결합된다. 이는 20세기 전반 양 차 대전을 계기로 혼용된 군사적 남성성으로 이어져 이전보다 단순화된 군사적 유니폼으로 재현되며 여성의 밀리터리 룩이나 유틸리티 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출현한 다양한 주체들의 성 정치적 저항운동으로 인해, 마초적 남성성은 주류패션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밀리터리 룩이나 유틸리티 룩의 형태로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글래머 여성성은 전통적 여성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패션에 관능성을 강화시켜가는 반면, 마초적 남성성을 표현한 패션이미지는 점차 그 의미를 소실하면서 지배하는 남성성에 관한 담론이 약화되어감을 보여준다.

전통적 여성성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양성적 여성성은 19세기 후반의 반패션인 남성복식 요소를 차용한 이성주의 복식에서 출발해, 19세기 말 가르손느 스타일로 주류패션과의 절충을 통해 대안적 여성성을 형성한다. 20세기 전반 제 1차 대전 이후 직업여성성을 중심으로 한 밀리터리 룩의 확산 이후 양 차 대전 사이에 등장한 플레퍼 룩, 가르손느 룩, 보

이쉬 룩 등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은 여성 주류패션에서 독립적 여성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패션 형식은 제 2차 대전과 함께 전통적 가정주부를 암시하는 유틸리티 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20세기 후반 중성적 형식의 유니섹스 룩을 거쳐 남성복 코트와 여성복 코트가 혼합된 앤드로지너스 룩을 통해 양성적 여성성을 형성한다. 한편, 남성패션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대안적 남성성을 형성한 양성적 남성성은 19세기 후반 저항적 남성성을 암시한 댄디 룩이나 로맨틱 보헤미안 룩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패션이미지는 20세기 전반의 전통적 남성성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수트의 실루엣에 미세한 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반문화의 태동과 함께 신에드워드안 룩이나 모즈 룩 등의 저항적 성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양성적 남성성은 주로 전통적 남성성과 대비를 보이면서 여성적 패션코드를 차용하는데, 특히 로맨틱 보헤미안 룩은 1950년대 비트 족 스타일을 지나 20세기 후반 히피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댄디 룩은 모즈 룩을 지나 20세기 후반 뉴 맨을 중심으로 한 앤드로지너스 룩을 통해 대안적 남성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반패션을 통해 저항적 성을 형성했던 양성적 성은 패션에서 남녀가 유사한 패션형식을 통해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주류화 되어 대안적 성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성 관념을 해체하는 저항적 성과도 상호작용 함으로써 성별 구분을 통한 갈등을 완화시킨다.

미성숙한 여성성은 19세기 후반 미적 복식으로 나타난 저항적 보헤미안 여성성에서 유래한다. 이는 20세기 모더니티의 사고와 결합하면서 주류패션에서 뽀아레 룩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양 차 대전 사이에 플래퍼 룩, 가르손느 룩, 보이쉬 룩과 같은 이전보다 단순화된 젊은 스타일로 대안적 여성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션이미지는 20세기 후반 미니스커트로 대표되는 리틀 걸 룩 이후 미성숙한 여성성을 재현하는 패션이미지로 남게 된다. 한편, 미성숙한 여성성에 대응하는 청소년 남성성은 20세기 후반 반문화를 기점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부각되기 시작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

거에 국가적으로 훈육 되었던 청소년의 성은 전환기를 맞이했고, 티셔츠와 청바지 등으로 스트리트 패션을 형성한 청소년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에 저항하나 패션에서 주로 스포츠 캐주얼의 형식으로 점차 주류패션화 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그런지 룩이나 힙합 패션 등 다양한 스타일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남성성은 전통적 올드 맨 뿐 아니라 양성적 뉴 맨에도 저항하지만 스포츠나 클럽 문화와 결합된 패션을 통해 젊음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정체성으로 하나의 대안적 남성성을 형성한다. 비록, 미성숙한 여성성을 암시하는 패션이미지는 새로운 몸의 통치체계에 구속되며 성적 대상화를 통해 소비사회 조장의 전유물이 되는 측면에서 전통적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한계를, 그리고 청소년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해 전통적 성을 재생산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들 두 대안적 성은 공통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부각된 젊음과 몸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함축한다.

무성적 성은 195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유니섹스 룩의 중성적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20세기 후반 청소년 반문화의 성장과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의 파워가 증가하면서 기성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한 유니섹스 룩은 점차 히피 패션과도 결합되면서 주류패션화 된다. 1990년대 이후 무성적 성은 젠더리스 룩의 형태로 성과 무관한 형식을 보임으로써 연령의 측면에서 청소년 성과도 상호작용하며, 양성적 성과 함께 남성과 여성 간에 존재하는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하위문화 집단으로부터 등장한 핑크 룩이나 크로스드레싱, 복장도착 등은 기존의 성에 대한 가치의 전복과 해체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저항적 성을 구성한다. 이후 이러한 이미지는 20세기 후반의 다양한 대안적 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류패션으로 전유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 이후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 유형들의 패션이미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드러낸다. 즉,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시대에 권력의 중심이었던 전범으로서의 부르주아적 남성성과 대상화된 여성성의 이분

법적 대립은 주류패션을 통해 주로 성별과 계급적 정체성을 함축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사회 내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외에도 청소년,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 등과 같은 과거에 배제되었던 주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점차 성의 다원화가 진행되었고, 이로부터 나타난 주류패션과 반패션의 역동적 변화와 함께 패션은 점차 젊음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Foucault를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은 성에 대한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권력관계를 통해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유동하는 다원적 성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을 토대로, 19세기 후반 이후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 과정을 맥락적 시각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다양한 성 유형들 간의 권력관계의 차원에서 패션으로 코드화된 성 이데올로기를 유추하고, 특정한 성을 표상하는 패션 이미지의 형식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19세기 후반 주류패션을 통해 표현된 성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남성의 권익을 우선시한 자본주의적 가치로, 19세기 후반의 패션이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이었다기보다는 이 시기에 개념화된 성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이 19세기 후반의 패션을 이분법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반패션으로 표현된 저항적 성은 20세기에 들어 다양한 대안적 성을 통해 주류화 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억압에서 벗어나 성의 해방을 성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20세기 전반에도 패션에 표현된 성은 대안적 성의 지배담론으로의 지속적인 전유를 통해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성의 해체에 관한 사고는 주로 남성 주류패션에서 지속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잔존으로 볼 때 전체 패션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이데올로기의 변

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패션으로 나타난 저항적 성은 때때로 주류패션을 통해 전통적 성으로 전유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배적 성 담론을 전복시킬 가능성도 보이며, 주류화된 대안적 성을 통해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와 차후 전통적 성 담론의 변화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 1>, <그림 15>.

첫째, 19세기 후반 패션이 성별과 계급을 표현하던 수단에서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성의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새로운 규율담론을 표상하는 수단이 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전범으로서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성 간에는 성별과 계급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20후반 이후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청소년, 여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과 함께 다원적 성들 간에 성별이나 계급적 가치의 간극은 점차 좁혀지고 대신에, 이들은 젊음과 섹슈얼리티를 지향하게 된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여성의 억압을 상징했던 코르셋의 위치에 20세기에는 다이어트라는 몸에 대한 새로운 통치체계가 이를 대체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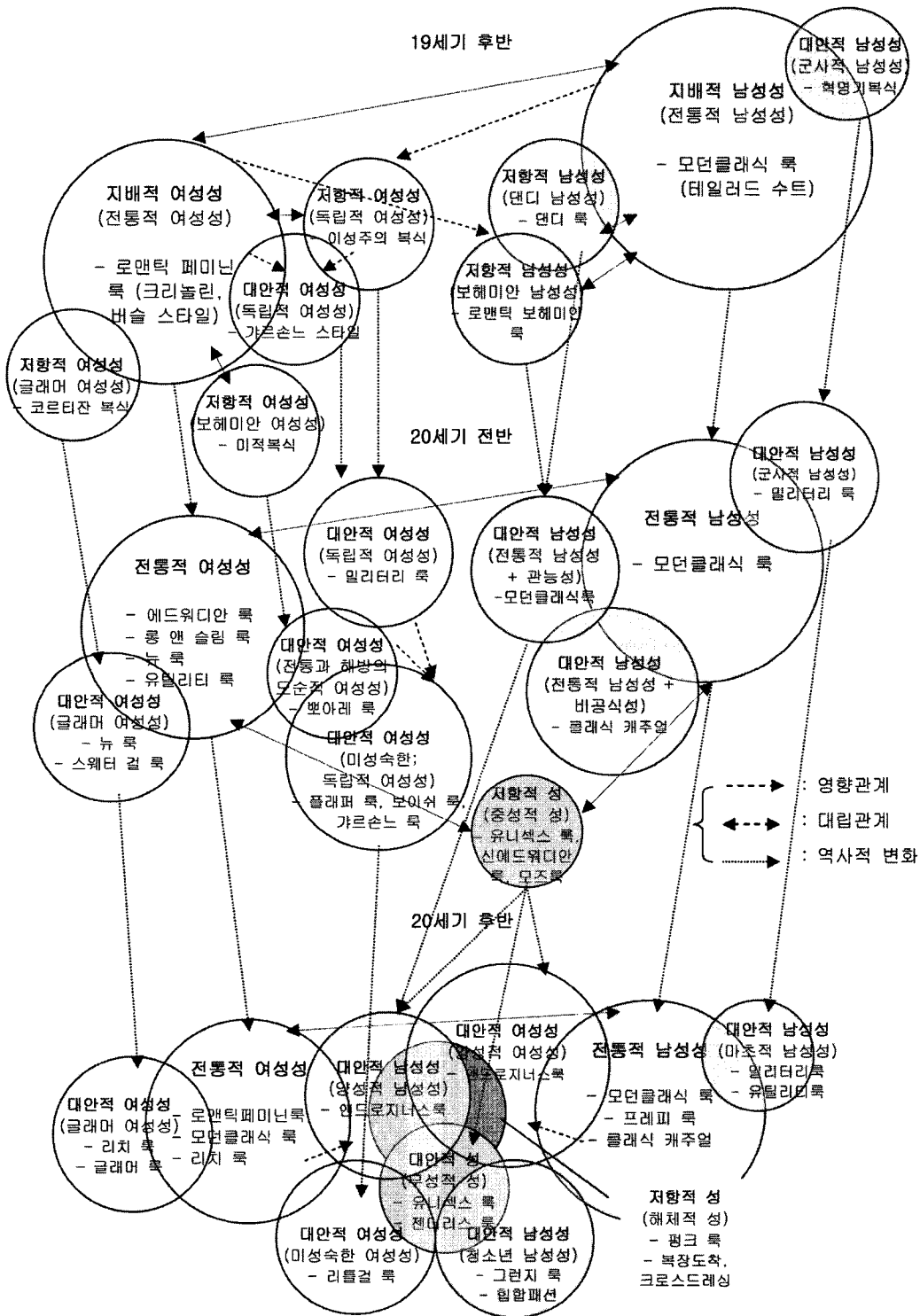
둘째,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성에 대한 모더니즘적 인식의 허구를 드러내면서 사고의 전환을 불러 일으키지만,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주류패션을 통해 비추어 본 전체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 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애적 남성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모던한 가치를 고수한다. 비록 여성 패션에 표현된 지배적 여성성은 전통적 여성성 이외에도 양성적 여성성의 급속한 증가로 여성성의 개념 변화를 암시하지만, 20세기 후반까지도 남녀주류패션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성의 경계나 여성패션에 비해 변화가 느린 남성패션은 이러한 성 담론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권력 강화에 직면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위 이탈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축할 뿐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인 여성의 권력을 향한 투쟁적 실천으로 보여진다.

<표 1> 19세기 후반 이후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

구분	주류패션									반패션				
	전통적 성			대안적 성						저항적 성				
19세기 후반	패션	로맨틱 페미닌 룩 (크리놀린, 버슬)	모던클래식 룩 (테일러드 수트)	가르손느 스타일			혁명기 복식			미적 복식	이성주의 복식	코르티잔 복식	댄디 룩	로맨틱 보헤미안 룩
	성	지배적 (전통적) 여성성	지배적 (전통적) 남성성	독립적 여성성			군사적 남성성			보헤미안 여성성	독립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댄디 남성성	보헤미안 남성성
20세기 전반	패션	에드워드안 룩, 롱엔슬림 룩, 뉴 룩, 유틸리티 룩	모던클래식 룩	밀리터리 룩	뽀아레 룩	플래퍼 룩, 보이쉬 룩, 가르손느 룩	뉴 룩, 스웨터 룩	밀리터리 룩	모던클래식 룩	클래식캐주얼	유니섹스 룩, 신에드워드안 룩, 모즈 룩			
	성	전통적 여성성	전통적 남성성	독립적 여성성	전통과 해방의 모순적 여성성	미성숙한 독립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군사적 남성성	전통적 남성성+관능성	전통적 남성성+비공식성	중성적 성			
20세기 후반	패션	로맨틱페미닌 룩, 모던클래식 룩, 리치 룩	모던클래식 룩, 프레퍼 룩, 클래식 캐주얼	앤드 로지너스 룩	리틀 걸 룩	리치 룩, 글래머 룩	밀리터리 룩, 유틸리티 룩	앤드 로지너스 룩	그런지 룩, 힙합 패션	유니섹스 룩, 젠더리스 룩	핑크 룩, 복식도착, 크로스드레싱			
	성	전통적 여성성	전통적 남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	해체적 성			

셋째, 20세기 후반 이후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은 느슨해진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보유하며, 역사적 맥락에 따른 변화뿐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서도 맥락유동성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성 정체성들의 간극은 과거에 비해 점차 좁혀지고 서로 중첩된 부분을 보임으로써 맥락에 따른 변화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로부터 성은 역사적으

로 유동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임이 입증되었으며,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은 이러한 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해체하는 정체성 매개체로서 하나의 가장행렬로 나타난다.



<그림 15> 19세기 후반 이후 패션에 표현된 성이 다원화



### 참고문헌

- 1) Foucault, Michel. 이규현 역 (1997). *성의 歷史-제 1권* *앎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 2) 본 고에서 '성'은 'sexua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 'sex'와 'gender'는 각각 '성차'와 '성별'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 종종 등장하는 '섹슈얼리티'라는 명칭은 미시적 차원의 성의 의미로 '성적 욕망'을 지칭한다.
- 3) Entwistle, Joanne (2000). *The fashioned body*. Cambridge: Polity, p. 116.
- 4) 조현순 (2001).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패러디, 수행성, 복중,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9(1), p. 179.
- 5)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p. 22.
- 6) Foucault가 언급한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는 개인이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체들이 '역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게 담론은 권력의 도구이자 결과일 뿐 아니라, 방해하는 것, 장애물, 저항점 그리고 정반대되는 전략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 7) 김정선 (1996).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7~28.
- 8) Flügel, J.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pp. 111~112.
- 9) Buckley, Cheryl and Fawcett, Hilary. (2002). *Fashioning the feminine*. New York: I.B. Tauris, pp. 55~57.
- 10) McLaren, Angus (1999). *Twentieth century sexuality: A history*. 임진영 역(2003). 20세기 성의 역사. 서울: 현실문화연구, pp. 25~44.
- 11) 전시에 정부의 실용화 계획에 따라 등장한 유틸리티 룩은 각진 어깨에 짧은 스트레이트나 주름 스커트 슈트, 군복 디테일, 밝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구성된 유니폼과 셔츠 웨이스트 드레스 등을 포함한 실용적 스타일로, 이는 실용적인 스타일 안에서 미세한 장식적 변화를 취하여 전쟁 중의 여성들의 노동과 성적 대상이라는 이중적 압력을 암시하면서 전통적 여성성을 코드화한다.
- 12) Kühne, Thomas. (Ed.) (1996). *Männergeschichte- Geschlechtergeschichte*. 조경식, 박은주 역 (2001). *남성의 역사*. 서울: 숲, pp. 201~234.
- 13) Edwards, Tim (1997). *Men in the mirror: Men's fashion, masculinity and consumer society*. London: Cassell, p. 19.
- 14) 뉴 래드는 매우 방어진 태도로 남성적 이미지를 고수하려는 주로 노동계급 출신의 청소년으로, 음주, 스포츠, 이성애적 성교를 좋아하지만 미성숙하고 사려깊지 못하며 지나칠 정도로 자의식적이고 진이나 티셔츠, 트레이너의 상표에 민감하다 (ibid., 1997).
- 15) Evans, Caroline and Thornton, Minna (1989). *Women and fashion*. London & New York: Quartet books.
- 16) Entwistle, Joanne and Wilson, Elizabeth (Eds.). (2001). *Body dressing*. New York, Oxford: Berg, pp. 165~180.
- 17) 프레피 룩(Preppie look)은 미국 아이비리그의 신사복 스타일을 캐주얼하게 해석한 스타일로, 클래식하고 심플하며 실용적이다.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 재킷, 폴로 셔츠와 타이를 기본으로, 남성은 깔끔한 면 바지, 여성은 주름 스커트와 무릎길이 반 양말의 교복을 기본형으로 한다.